

또 다시 봄

Again Spring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또 다시 봄입니다. 산수유 마른 가지 위에 노르스름한 작은 꽃망울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마치 진격신호를 받은 용사들처럼 매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환호를 지르며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입니다.

세상도 춥고 어수선했던 겨울을 보내고 조금씩 환해지며 사람들도 덩달아 환해지고 있습니다. 간혹 눈치 없는 황사가 서쪽에서 밀려오고 미세먼지가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오던 봄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봄을 맞아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경기도 같이 풀려서 즐겁게 건축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들리는 소리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네요. 오랜 기간 얼어붙어있던 단단한 얼음이 당최 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실무를 시작한 지 삼십년이 돼가지만 그 동안 경기가 좋던가 살만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고 불안하다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항상 들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아" 하는 말이었죠.

정말 지난 삼십년 동안 그렇게 어렵기만 했을까요?

개인차는 좀 있었지만 좋은 시절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80년대 90년대 초에 건축 붐으로 건축계는 일이 많았고 2000년대 초에는 공공발주로 일이 많았습니다. 굉장한 팽창기를 보냈던 시절이었죠. 사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건축계도 내실 있게 발전하고 기술이 축적되어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혜택이 고르게 배분 되지 못한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공공발주로 인한 양적인 팽창은 몇 군데의 메이저 건축회사에서 독식하는 불합리가 건축계에 존재했습니다. 그때 설계시장이 4조 가까이 되었는데 상위 20개 업체가 그 절반이 넘는 양을 소화해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이고 균형이 맞지 않는 시장구조였죠. 그러다보니 건축의 물량은 많았으나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힘들었습니다. 또한 턴키, PF 등의 이상한 발주 형식으로 건축설계업의 지위는 발주자 역할을 하는 시공사의 아래로 들어가 시공사에게 설계를 검토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경기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어지럽게 흐트러진 잔해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남은 건 초라해진 설계자의 위상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요란한 개발 사업들은 수그러지고 공룡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사무실들은 몸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폐허가 된 빈터에 민들레가 피어오르듯 이제 건축계가 정신을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을 사듯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구매의 행태는 많이 수그러들고 실수요자가 자신의 집을 짓는 건강한 건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연의 건축을 시작할 때가 돌아 온 것입니다.